

나주시청 사거리~시내 방향·이창동 영산포 사거리 교차로

교통 흐름 무시한 차선 운전자 '아찔'

정체 심하고 사고위험

나주시 주요 도로 차선이 교통흐름 등을 전해 감안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설치돼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우려가 높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나주시와 운전자 등에 따르면 시청 사거리에서 나주시내 방향 진입을 위해 3차로를 200m 가량을 주행하다 보면 다음 교차로에서 나주방향 2차로 주행차량들과 뒤섞

여 운전자들이 큰 혼선을 빚고 있다.

이 경우 3차로 주행차량과 우측 가변차선을 따라 주행하던 차량들이 해당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시내방향 진입 유도선에 따라 나주 시내로 진입하려는 2차로 주행차량 등과 뒤엉켜 아찔한 교통사고 위험을 수시로 경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해당구간 도로의 경우 통상적으로 3차선은 시내진입 주월 차선(1차선)으로 유도하고 가변차선은 주행차선으로 조속히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국도 13호선 구간인 나주시 이창동 영산포 축협마트 사거리 교차로 역시 교통흐름이 뒤엉켜 이곳을 주행하다 보면 운전자들이 사고위험과 교통체증 등으로 매번 식은땀을 흘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50m 전방의 또 다른 교차로의 교통흐름을 감안하지 않은 채 차선이 설치돼 발생한 것으로 해당 구간의 도로여건이 불가피할 경우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운전자 K(52)씨는 “제멋대로 그려놓은 차선 때문에 출·퇴근시 정체는

물론이며 매번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예전 LG광장 앞 3거리 교차로도 차선이 제멋대로 그려져 문제가 됐었으나 뒤늦게 개선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나주경찰서 교통계 관계자는 “지난해 업무를 맡은 이후로 해당구간 차선에 대한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접하지 못했다”며 “차량 통행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화순 현대노인요양원 개원

무진의료재단 16억 투입

화순 무진의료재단이 설립한 현대노인요양원이 지난 21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화순 무진의료재단은 사업비 16억 원을 들여 정신적·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의 요양과 치료를 위해 지난해 5월 요양원을 착공했다.

화순 현대요양병원 별관 뒤편에 위치한 요양원은 연면적 1837㎡·건축면적 701㎡에 75병상 규모이다.

김재택 무진의료재단 이사장은 “나이를 먹고 세월의 연륜이 쌓이는 일이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요양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진의료재단은 지난 2004년 12월 의료법인으로 설립, 이듬해 2월 의료개설 허가를 받아 화순 현대병원(이후 현대요양병원으로 명칭 변경)을 개원했다. 이후 2009년 화순 요양병원을 개원해 지난해 양 병원을 통합(266병상 규모)해 운영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



새터민 中企 취직시켜 주고

산업체 방문·문화 탐방도

화순경찰서 보안과 생필품·장학금 지원

화순경찰서 정보보안과(과장 서채수)가 북한 이탈주민 한국사회정착 지원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탈북자들은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못해 혼자서는 취업을 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취업을 하더라도 이직률이 높다.

이에 따라 화순경찰은 북한 이탈주민들의 취업지원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올해 5명을 지역 종소기업에 취업시켰다.

또 화순경찰 직원들은 매월 사랑나눔 성금을 모아 탈북자 4명에게 성금 10만원과 생필품을 전

달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탈북자들을 돋고 있다.

직원들은 지난 4월 전입한 탈북자와 연탄보일러 고장 등으로 인해 애로를 겪자 집 고치기 봉사 활동을 벌였다.

특히 보안협력위원회는 관내 탈북자중 암마와 함께 사선을 넘어 입국한 청소년(여·16)에게 고등학교 졸업식까지 매월 1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화순경찰은 최근 관내 북한 이탈주민 7명과 위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에 위치한 선박클럽 제조업체 디에스 중공업(대표 김성길)을 방문(사진)하고 진도 지역 문화탐방을 실시했다.

또 화순경찰 직원들은 매월 사랑나눔 성금을 모아 탈북자 4명에게 성금 10만원과 생필품을 전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 위령제

담양유족회

한국전쟁 전후 담양지역에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민간인 피화살자들을 추모하는 위령제가 열렸다.

6·25전쟁 전후 피화살자 담양유족회는 지난 21일 담양 문화회관에서 최희우 부군수와 전정철 군의회 의장, 유종희 최의호 회장을 비롯해 사회기관장, 유가족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위령제를 가졌다.

이날 추모제에서는 식전행사로 6·25전쟁 전후 피화살자 담양지역에서 사망한 유족 5천여 명을 추모하는 추모제가 열렸다.

식이 거행됐다.

본행사에서는 최의호 회장과 함정호 유족이 피화살자 유가족을 대표해 제례를 올렸으며 유순자(장성군) 씨의 추모사 낭송에 이어 유족들의 헌화가 이어졌다.

한국전쟁 전후 담양 관내에서는 담양읍 학동리와 용면 가마골, 월산면 바심재, 남면 인암리, 창평과 대덕면 일대 등에서 북한군과 국군, 경찰에 의해 많은 민간인이 희생됐다.

이번 위령제는 지난 2008년 가마골 위령제와 2009년 용화사 위령제에 이어 3회째를 맞았다.

/중부취재본부=노정훈기자 cjob17@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 위령제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지신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번호사관 옆 건물) 또는 (지신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금주의 추천 물건 대표이사 010-7570-7525

담양온천 대8297㎡, 건10821㎡	신안동 [3층스포츠센터] 대3026㎡, 건5984㎡	수기동 [12층광판호텔] 대923㎡, 건2758㎡	충장로3기구근린시설 대449㎡, 건961㎡	통일동 [3층상가주택] 대198㎡, 건335㎡	금동[대세대주택] 대90㎡, 건363㎡	금동[원룸16칸] 대90㎡, 건363㎡
김정가 156억원 최저가 70억원	김정가 69억3천 최저가 38억8천	김정가 74억8천 최저가 41억9천	김정가 17억2천 최저가 12억	김정가 3억2천 최저가 2억2천	김정가 3억6백 최저가 2억3천	김정가 3억3천 최저가 2억3천

유동화자산매각 대표이사 010-7570-7525

용봉동 [히미스포트레스] 대4076평 ▷ 건물12943평	목포요양병원 대7867평 ▷ 건물 2510평	광주유동 공장 대7대 717평 ▷ 건물 679평	해남 땅끌코노 대2284평 ▷ 건물 2654평
▷ 김정가 515억7천	▷ 김정가 12억9천	▷ 김정가 15억7천	▷ 김정가 83억
▷ 매매가 160억 (시설비별도)	▷ 매매가 95억(협의후결정)	▷ 매매가 795천 (협의후결정)	▷ 매매가 32억 (협의후결정)

전주 의약물류센터 대4112평 ▷ 건물 1749평	군산시아이오에너지공장 대3030평 ▷ 건물 599평	곡성석곡 공장 대8754평 ▷ 건물 2891평	전북원주 봉동 공장 대7125평 ▷ 건물 5465평
▷ 김정가 85억5천	▷ 김정가 99억4천	▷ 김정가 443억3천	▷ 김정가 135억
▷ 매매가 60억 (협의후결정)	▷ 매매가 50억 (협의후결정)	▷ 매매가 20억 (협의후결정)	▷ 매매가 85억 (협의후결정)

근린시설/원룸 김규석이사 010-6654-6888	숙박시설/상가 정현로이사 010-5879-0005	공장/토지 김태호전무이사 010-684-3886
-----------------------------	-----------------------------	----------------------------

* 고객이익우선원칙을 소중하게 지켜갈 경력컨설턴트를 모십니다

상담 및 접수 236-3400

[경매전문회사 직원모집]

* 고객이익우선원칙을 소중하게 지켜갈 경력컨설턴트를 모십니다

상담 및 접수 010-7570-7525

병원·교회·사옥·모텔·상가 등 원하시는 부동산을
접수해 주시면 가장 빠른시간안에 가장 좋은 조건으로
찾아드립니다. ■ 상담 및 접수 010-7570-7525



영산포 항구 개항 20주년 기념행사가 지난 21일 영산포항에 임향했다. 영산포구는 시설확장에 따라 최고 200t급 선박까지 접안할 수 있게 됐다. /중부취재본부=정철현기자 chjung@

200t급 선박 접안… 영산포구가 살아난다

죽산보 준공 담수능력 크게 늘어

97t급 왕건호 접안 시연 탑승체험

영산강 하구인 죽조와 함께 쇠뢰의 길을 걸었던 나주 영산포구가 다시 부활한다.

나주시와 영산강 배길 복원추진 위원회는 지난 21일 영산강 영산포구에서 최인기 의원, 임상훈 나주시장과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산포구 복원행사 등을 열었다.

영산강 구간에는 영산포구 등 11개 나루터가 있으며 옛 영산포구 복원행사 등을 열었다.

이날 97t급 왕건호의 접안 시연과 탑승체험 등이 진행됐다.

/중부취재본부=정철현기자 chjung@

심지였으나 1976년 하구언 죽조와 호남선 철도 개통 등으로 쇠락했다.

양치원 추진위원장은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죽산보를 통해 선문이 설치돼 오랜 속원이 해결돼 감격스럽다”며 “영산포구의 화려했던 영화가 다시 재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상훈 나주시장은 “다시 열린 영산강 배길과 영산포구의 부활은 혁신도시와 함께 100년 만에 변모하는 나주의 대표적인 발전상이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정철현기자 chjung@

나주 시민의 상 이민관씨

‘제17회 나주 시민의 상’ 수상자로 나주지역 향토사인 이민관(85)씨가 선정됐다.

나주시는 지난 21일 시민의 상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열고 지역개발·사회복지·산업경제·교육문화 등 4개 부문에서 추천된 11명을 대상으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교육문화 부문만 수상자를 확정했다.

이 씨는 공직생활중 나주 전역에 방치된 향토유물 244점